

간호대학생의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이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김 문 정[†]
(부경대학교)

Influence of Humanities and Empathy on Ethic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Moon-Jeong KI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of ethical values in nursing students. The survey was conducted in two nursing colleges (n=180)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using SPSS/WIN 21 software. Influencing factors of ethical values were empathy(t=3.436, p=.001), teaching method except lecture(t=3.037, p=.003), and curriculum track at high school(t=2.309, p=.022). The mode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xplaining 16.2% of the variance (F=11.185, p<.001). This study suggests that strategies for increasing nursing students' ethical values include reinforcing empathy, utilizing various type of teaching method except lecture in nursing ethics class, and allowing high school students applying to college of nursing regardless of their curriculum track.

Key words : Humanities, Empathy, Ethics, Nursing, Students

I. 서론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의 학습성과 가운데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이해하고 간호실무에 통합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 시절에 개발된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은 임상실습 현장이나 졸업 후 임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이 어떠한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졸업 후 이들이 행하게 될 전문적 간호행위와 직결되며, 바람직한 윤

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중요하다 (Kim Myoung-Sook 2015).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윤리적 가치관의 수준을 밝힌 연구(Ahn Eun-Kyong · Ku Ok-Hee · Kim Tae-Sook 1998)와 다양한 형태의 토론을 윤리교육에 활용한 중재연구들이 있었다. 온라인 방법의 사례기반 학습과 오프라인 방법의 문제중심학습을 혼합한 혼합학습 프로그램(Kim Sang-Dol 2014)과 찬반논쟁 형식의 토론학습법에 팀별대항방식의 협동학습법이 결합된 CEDA(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토론학습(Jung Hyun-Jung · Park Hyun-Joo · Jang In-Sun 2012)을 활용한 중재 모두 윤리적 가치관

[†]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787, mjy7955@pknu.ac.kr

증진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윤리적 가치관의 요인을 탐색한 연구들은 학년과 종교 등 일반적 특성과 학과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고(Lee Soon-Hee · Kim Sook-Young · Kim Jung-A 2007), 도덕성 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나(Kim Mee-Jeong · Kim Myung-Hee 1999)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관련요인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중재연구들이 먼저 수행되었으나 윤리적 가치관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관련요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최근 과학기술에만 치중한 나머지 피폐해진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간호는 보살핌의 실천이며 그 보살핌의 대상은 몸으로 존재하는 인격체인 사람이다. 몸으로 존재하는 인격체라는 사실은 인간이 자연계의 물리적, 화학적 조건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조건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Kang Young-Ahn 2006). 이런 의미에서 간호는 전인적이며, 간호사에게 인문학적 소양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인문학적 소양은 간호학의 기본 개념인 인간, 환경, 건강, 간호를 이해하기 위한 관점을 제시하며, 간호사로서 가치관 확립을 위한 윤리적 규범을 탐구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선행연구(Jo Kae-Hwa · Park Ae-Ran · Lee Jin-Ju · Choi Su-Jung 2015)는 간호사의 인문학적 소양이 임종간호수행에 영향을 준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교육이 인문학적 소양과 결합될 때 돌봄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인문학적 소양이 간호대학생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타 학문분야에서 인문학적 소양의 효과를 밝힌 연구는 과학영재의 인문학적 소양이 회복탄력성의 관련요인이라고 보고한 Kim Yeoung-Il(2014)의 연구가 있었다. 인문학적 소양, 특히 철학적 소양은 생각하는

방법을 깨닫게 함으로써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인문학적 소양이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공감(empathy)은 타인의 정서에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지만 타인의 정서에 보다 적합하게 반응하는 대리 정서반응이며, 도덕적 정서반응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Hoffman, 2001). 공감 정서 없이는 도덕적 판단이 도덕 행동으로 연결될 수 없을 만큼 공감은 중요하다(Rest, 1986). 도덕적 상황의 이해는 타인이 처한 취약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만 그칠 수 있으며 공감 정서 없이는 도덕 행위로 이어질 수는 없다(Reynolds, Scott, & Austin, 2000). 예컨대 위험이나 고통 상황에 처한 타인을 볼 때 타인의 고통을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공감적 고통이 발생하고, 도덕적 인지와 정서적 자각을 일으키며 결국 도덕 행동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Hoffman, 2001). 공감이 윤리 영역의 제 변수들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공감능력이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이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이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근접모집단은 부산, 경남지역에 소재한 2개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 1-4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 514명이었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G 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유의수준(α) 5.0%, 검정력($1-\beta$) 95%, 중간 효과크기(f) 0.15, 예측변수 9개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66명이었다. 80%의 회수율을 가정하여 199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189부(95.0%) 가운데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180부(90.5%)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3. 연구도구

가. 인문학적 소양

인문학적 소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 Yeoung-II(201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3개 문항이며, 책 읽기 소양, 역사 소양, 문학철학적 소양, 예술적 소양 등 4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문학적 소양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개발 당시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나. 공감능력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Davis(1994)가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대인관계반응지수(Inters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Park Sung-Hee(1997)가 번안한 한글판 IRI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8개 문항이며,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등의 2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인지적 공감에는 관점 취하기와 상상하기 요인이 각 7문항, 정서적 공감에는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이 각 7문항 포함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Jo Hye-Kyung(2015)과 본 연구에서 .77이었다.

다. 윤리적 가치관

윤리적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하여 Lee Young-Sook(1990)이 고안하고 Choi Gwi-Ney(2004)

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4개 문항이며, 인간생명 관계, 환자 관계, 간호업무 관계, 동료 관계 등의 4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1=반대한다, 5=찬성한다)로 높은 점수는 의무론적 입장을, 낮은 점수는功利주의적 입장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인간생명 관계'영역의 높은 점수는 자기 삶의 질보다 인간의 마땅한 도리와 인간생명 존중을 우선시함을 나타낸다. '환자 관계'영역의 높은 점수는 치료자 중심의 편익과 권위의식보다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함을 의미한다. '간호업무 관계'영역의 높은 점수는 목적 달성이나 간호행위의 결과보다 전문직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함을 의미한다. '동료 관계'영역의 높은 점수는 동료 간의 인정이나 의리보다 환자를 중요시하며, 모든 관련자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고 협조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Choi Gwi-Ney(2004)에서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3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부산의 P대학과 경남지역에 소재한 Y대학 학과사무실에 전화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을 설명한 후 학생회장을 소개받았다. 학생회장이 본 연구에 대한 안내와 온라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URL주소를 단체 SNS에 업로드 하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단체 SNS 상에서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 연구윤리 준수사항 등을 읽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 온라인 조사가 진행되는 URL주소를 링크하게 안내하였다. 설문지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전혀 포함하지 않았고, 조사원의 개입이 없었으므로 연구 참여의 자발성이 잘 보장되었다고 본다. 대상자가 응답을 마친 후 '제출하기'버튼을 누르면 설문조사가 완료된다.

참여에 대한 보답으로 연구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통계분석 방법

설문지조사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WIN 21.0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상자의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과 윤리적 가치관의 수준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로 분석한 후, Scheffé's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이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

대부분의 대상자가 여학생이었고(88.9%), 20-24세(93.3%)의 연령이었다. 고등학교 계열은 이과가 67.2%, 문과가 28.9%이었다. 재학 학년은 2학년이 32.3%, 3학년이 29.5%, 1학년이 27.2%, 4학년이 11.1% 순이었다. 대상자의 64.4%가 간호윤리를 배웠고 34.5%는 아직 배우지 않았다. 간호윤리를 배운 대상자 가운데 수업 중 강의 외 교수법을 접해본 대상자는 51.7%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를 보면, 고등학교 계열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여 이과보다 문과 출신 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F=4.949, p=.008$). 또한 사례기반 토론, 팀기반 토론, 일반 토론 등 강의 외 교수법의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여 간호윤리에서 강의 외 교수법을 접해 본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4.446, p<.001$)(Table 1> 참조).

<Table 1> Ethical Valu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80)

Variable	Category	n	(%)	M±SD	t/F(p) Scheffé
Sex	female	160	(88.9)	3.87±0.38	1.385(.168)
	male	20	(11.1)	3.74±0.51	
Age	20-24	168	(93.3)	3.85±0.40	-0.846(.398)
	≥25	9	(5.0)	3.97±0.38	
	missing	3	(1.7)		
Curriculum track at high school	liberal arts ^a	52	(28.9)	3.99±0.36	4.949(.008) a>b
	natural science ^b	121	(67.2)	3.81±0.39	
	others ^c	7	(3.9)	3.67±0.57	
Grade(year)	first	49	(27.2)	3.95±0.34	2.428(.067)
	second	58	(32.2)	3.75±0.39	
	third	53	(29.5)	3.88±0.41	
	fourth	20	(11.1)	3.87±0.47	
Learning nursing ethics	yes	116	(64.4)	3.84±0.39	-0.821(.413)
	none	62	(34.5)	3.89±0.40	
	missing	2	(1.1)		
Teaching methods except lecture	yes	60	(51.7)	3.99±0.36	4.446(<.001)
	no	56	(48.3)	3.69±0.37	

2.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 윤리적 가치관의 수준

대상자의 인문학적 소양의 평균은 2.55점이었고, 하부요인별 점수는 역사 소양과 문학·예술 소양이 3.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책 읽기 소양이 2.09점, 예술 소양이 1.93점이었다. 대상자의 공감 능력은 평균 2.49점이었고 하부요인별로는 공감적 관심이 2.65점으로 가장 높았고, 관점 취하기 2.56점, 상상하기 2.52점, 개인적 고통 2.22점 순이었다.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은 평균 3.86점이었고, 하부요인별로는 간호업무관계 점수가 평균 4.16점으로 가장 높았고, 환자 관계 4.14점, 동료 관계 3.86점, 인간생명 관계 3.26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조).

<Table 2> Level of Study Variables

Variable	Mim-Max	M±SD
Humanities	1.00-4.17	2.55±0.62
History	1.00-5.00	3.09±0.94
Literature & philosophy	1.00-5.00	3.09±0.85
Reading	1.00-4.67	2.09±0.88
Arts	1.00-5.00	1.93±0.77
Empathy	1.57-3.43	2.49±0.34
Fantasy	0.71-4.00	2.52±0.61
Perspective taking	0.71-3.86	2.56±0.55
Empathic concern	1.14-3.86	2.65±0.53
Personal distress	0.86-3.43	2.22±0.49
Ethical values	2.50-4.71	3.86±0.39
Colleague	2.00-5.00	3.86±0.61
Human life	1.13-4.88	3.26±0.64
Nursing task	2.83-5.00	4.16±0.51
Patient	1.57-5.00	4.14±0.47

3.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 윤리적 가치관의 관계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상관 정도가 매우 낮았고 ($r=.163, p<.05$), 인문학적 소양과 윤리적 가치관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r=.097, p=.200$). 공감 능력과 윤리적 가치관 간에는 낮은 양적 상관관

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r=.275, p<.001$)(<Table 3> 참조).

<Table 3>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Humanities	Empathy
Empathy	.163*	1
Ethical values	.097	.275**

* $p<.05$, ** $p<.001$

4. 윤리적 가치관의 영향요인

윤리적 가치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공감 능력과 윤리적 가치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강의 외 교수법과 고등학교 계열을 독립변수로 투입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감 능력($t=3.436, p=.001$)과 강의 외 교수법($t=3.037, p=.003$), 고등학교 계열($t=2.309, p=.022$) 모두 윤리적 가치관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간의 공차한계는 0.952-0.984로 0.10보다 훨씬 컸으며, 분산팽창지수(VIF)는 1.016-1.050으로 10보다 훨씬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감능력과 강의 외 교수법, 고등학교 계열이 포함된 윤리적 가치관 모형의 설명력은 16.2%이었고 유의하였다($F=11.185, p<.001$)(<Table 4> 참조).

IV. 논의

본 연구에서 성별, 연령, 대학교, 재학 학년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고등학교 계열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간호윤리 교과목의 이수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호 윤리 수업에서 강의 외 교수법을 경험했는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였다.

학년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1학년 때 가장 높았다가 2학년 때 최저로 감소하였고 3,4학년 때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Ethical Values

Variable(1=Reference)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3.383	0.232		14.578	<.001		
Empathy	0.28	0.081	0.241	3.436	0.001	0.984	1.016
Teaching methods except lecture(1=yes)	0.172	0.057	0.217	3.037	0.003	0.952	1.050
Curriculum track at high school (1=liberal arts)	0.142	0.062	0.164	2.309	0.022	0.963	1.039
$R^2=.162$, Adjusted $R^2=.148$, $F=11.185$, $p<.001$							

이는 1학년이 사전에 의무론적 입장을 보이다가 간호윤리 수업과 임상실습을 경험한 1년 후에 의무론적 입장이 완화되고, 2학년이 사전에 다소 의무론적 입장을 취하다가 1년간의 임상실습 후 의무론적 입장이 강화되었다고 보고한 Park Mi-Hwa(200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2학년이 3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Kim Myoung-Sook 2015), 1, 2학년이 3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아(Lee Soon-Hee · Kim Sook-Young · Kim Jung-A 2007)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높았다. 학년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의 변화는 대체로 간호윤리 이수 전에는 강한 의무론적 입장을 보이다가 간호윤리 이수 후 의무론적 입장이 다소 완화되고, 이후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의무론적 입장이 회복되어 가는 경향이 있어 보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윤리적 가치관의 점수는 간호윤리를 배웠는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간호윤리를 독립된 교과목이 아닌 간호학개론의 일부로 접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81개의 4년제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교과과정을 조사한 연구에서 간호윤리와 철학은 대학에 따라 최소 1학점부터 최대 3학점까지, 평균 1.7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Kim Mi-Won · Park Jeong-Mo · Han Ae-Kyung 2011). 간호윤리에만 배정된 학점은 이보다 적을 것이며, 간호대학생이 예비 간호사로서 알아야 할 생명의료윤리 관련 쟁점들을 충분히 소개하고 토론식 수업을 적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학점이라고

사료된다. 간호윤리의 독립된 교과목 운영 여부, 학점 배정, 교수학습방법 등 간호윤리 수업의 운영방식과 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윤리 수업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계열이 문과인 경우와 간호윤리 수업에서 강의 외 교수법을 활용한 경우 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들 변수와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인문학적 소양은 평균 2.55점이었다. 하부영역별로는 역사 소양과 문학·철학 소양이 3.09점으로 중간 점수보다 높았고, 책 읽기 소양은 2.09점, 예술 소양은 1.93점으로 중간 점수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과학영재 고등학생의 인문학적 소양이 여학생 3.10점, 남학생 2.98점이었던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고, 역사 소양과 문학·철학 소양에 비해 책 읽기 소양과 예술 소양이 낮았던 것은 유사하였다(Kim Yeoung-Il 2014). 반면 본 연구대상자의 인문학적 소양 수준은 대구·경북 지역 500명 이상 규모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2.39점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었다. 이들 간호사의 경우에도 역사 소양과 문학·철학 소양이 책 읽기 소양과 예술 소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Jo Kae-Hwa et al. 2015).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의학 이론뿐 아니라 유학 경전에도 밝아 자신을 수양하는 도덕군

자형 의사를 이상적으로 여기며 의료인의 인덕을 매우 중요시하였으며(Han Sung-Suk et al. 2010), 이는 오늘날에도 동일하여 의료인의 인간적 품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있다(Jo Kae-Hwa · Kim Gyun-Moo 2013).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와 중세에는 텍스트 속에 사람의 생각과 행위의 전범이 담겨 있다고 믿으면서 고전 읽기와 이해를 인성교육의 가장 좋은 수단으로 생각하였다(Kang Young-Ahn 2006). 고전만이 아니라 시, 소설,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활용하여 우리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텍스트들을 새롭게 들여다보는 훈련을 통해 성찰과 소통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Shin Hee-Sun 2013). 특히 예술을 통한 세계의 본질에 대한 통찰은 자신의 고유한 육체를 매개로 하여 표상의 세계에 얽매인 인간의 이기적인 성향에서 벗어나 동정심에 의한 세계와 타자와의 연대적 감정을 통해 도덕적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영향력을 지닌다(Kong Byung-Hye 2015).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역사 소양과 문학철학 소양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음에 반해 책 읽기 소양과 예술 소양은 부족하였다. 이들 소양을 개발하기 위해 간호학과 커리큘럼에 다양한 인문과 예술 교과목을 도입하고 관련된 교과 외 활동을 개발·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은 4점 만점에 평균 2.49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종합대학교 간호대학 1학년 학생의 3.7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지만, 동일한 도구로 측정된 정신간호사의 수준과는 동일하였다(Jo Hye-Kyung 2015). 본 연구에서 하부요인별로는 공감적 관심(2.65점)과 관점 취하기(2.56점), 상상하기(2.52점)가 비슷한 수준이었고, 개인적 고통(2.22점)이 그에 비해 낮았다. 정신간호사의 경우 관점 취하기(2.85점)와 공감적 관심(2.79점)은 본 연구대상자보다 높았고, 상상하기(2.37점)와 개인적 고통(1.96점)은 본 연구대상자보다 낮았다. 간호대학생은 정신간호사에 비해 타인의 견해나 관점을 취하여 반응하는 능력은 부족한 반면에 타인이 안 좋은 일을 겪는 것

을 볼 때 불편한 감정을 함께 경험하는 경향이 큼을 알 수 있다. 간호사에 비해 임상경험이 적은 간호대학생은 고통에 대한 역치가 낮고, 대상자와의 비판적 거리두기 훈련이 부족하여 개인적 고통이 높았을 수 있다. 간호대학생이 대상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하려면 공감 안에 머물면서도 개인적 고통을 넘어서서 비판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훈련해야 할 것이다(Han Sang-Youn 2013).

본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수준은 평균 3.86점이었고, 하부요인별로는 간호업무 관계, 환자 관계, 동료 관계, 인간생명 관계 순으로 높았다. 전문대학 간호과 1-3학년 학생의 경우 동료 관계, 환자 관계, 간호업무 관계, 인간생명 관계 순으로 윤리적 가치관 점수가 높았고(Lee Soon-Hee et al. 2007) 간호장교의 경우에는 동료 관계, 간호업무 관계, 환자 관계, 인간생명 관계 순으로 높았다(Choi Gwi-Ney 2004). 간호대학생과 간호장교 모두 인간생명 관계에서 가장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한 결과는 일치하였다. 이는 최근 삶과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와 생명연장보다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생명존중의 절대적 원칙이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인들은 죽음을 인간적인 숙명으로 지각하면서도 의학적 실패로 여겨 죽음을 억압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으며(Jo Kae-Hwa · Kim Gyun-Moo 2013), 한국의 형법도 절대적 생명보호 원칙을 전제로 하여 자살방조죄의 범죄구성요건을 두고 있다(Lee Joo-Hee 2011). 이러한 현실에서 간호대학생이나 간호사가 인간생명에 대한 공리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다 보면 도덕적 딜레마에 종종 빠지게 될 것이며, 자신이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을 위협에 빠뜨릴 수도 있다. 따라서 간호윤리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의 균형적인 사고를 돕는 일도 필요하겠으나 인간생명에 대해서는 의무론적 입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상관정도는 매우 낮았고 윤리적 가치관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개념 정립의 부족과 측정도구의 한계에서 기인된 결과로 보인다. 최근 대학교육에서 융합형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과 계열의 학생들에게도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물며 장차 아픈 사람을 보살펴야 할 간호대학생에게 인간에 대한 전인적인 이해를 위한 인문학 교육은 필수적이다. 간호대학생의 인문학적 소양을 측정하고 인문학 교육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립된 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과 강의 외 교수법, 고등학교 계열이 윤리적 가치관을 설명하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세 요인이 포함된 모형의 설명력은 16.2%이었다. 공감능력은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과 치료적 관계, 공감능력과 치료적 의사소통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공감능력과 도덕적 요소의 관계에 대한 파악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선행연구(Jo Hye-Kyung 2015)에서 정신간호사의 공감능력은 도덕적 민감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도덕적 민감성은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황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으로 (Lutzen, 1997), 윤리적 가치관과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윤리적 가치관의 영향요인 이자 간호의 핵심요소인 공감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Williams & Stickley, 2010). 간호사의 공감능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의사소통 훈련(Ansel, 2006)이나 공감능력 강화 프로그램(Reynolds, 1998)을 간호대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으며, 한국 실정에 맞는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공감능력 가운데 관점 취하기와 공감적 관심이 도덕적 민감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Jo Hye-Kyung 2015). 직접적인 비교연구의 결과는

아니지만 본 연구대상자는 Jo Hye-Kyung(2015)의 정신간호사에 비해 상상하기와 개인적 고통은 컸지만 도덕적 민감성과 관계가 있는 관점 취하기와 공감적 관심은 낮았다.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이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윤리 수업에서 강의 외 교수법의 경험 여부가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들이 보고한 강의 외 교수법은 사례기반 토론, 팀기반 토론, 일반 토론이었다. 일반 토론과 사례기반 토론의 경우 학생의 참여도가 낮아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Kim Ock-Joo · Lyoo In-Kyoon · Chang Kee-Hyun 2004), 본 연구에서 강의 외 교수법을 활용한 자체만으로도 윤리적 가치관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간호사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처했을 때 윤리적 쟁점을 파악하고, 분석과 추론의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근거가 확실한 해결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Han Sung-Suk et al. 2010). 간호대학생이 이러한 역량을 함양하려면 주입식 교육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CEDA 토론, 딜레마 토론, 자유 토론, 전문가 참여 토론(Jung Hyun-Jung · Park Hyun-Joo · Jang In-Sun 2012) 등을 간호윤리 수업에 활용하는 시도들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문과계열 출신자의 윤리적 가치관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과와 문과가 각각 실리와 진리 추구에 초점을 두는 학문적 특성과 교육과정의 차이가 대상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거나, 이과나 문과를 선호하는 학생들의 특성이 원래부터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간호업무를 인도할 윤리적 가치관이 이과보다 문과 출신자에게서 유의하게 높았던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학을 전공함에 있어서 문과 출신자의 강점도 있음을 시사한다. 2005학년도 입시부터 시행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표면상 계열이 없어짐에 따라 간호학과에서도 문과·이과 간 교차지원이 늘고 있는 현상은 이러

한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산·경남지역의 두 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이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공감능력은 윤리적 가치관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인문학적 소양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문과 출신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이 유의하게 높았던 결과로부터 인문학적 소양과 윤리적 가치관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이는 인문학적 소양의 개념 정립이나 측정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간호교육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보살피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윤리적 가치관의 정립뿐 아니라 인격과 성격, 품성 등 내면성 형성이 중요하므로 간호대학생의 인문학적 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간호대학생이 다른 소양에 비해 부족한 책 읽기와 예술적 소양을 강화하기 위한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공감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간호윤리 수업에서 강의 이외의 교수법 활용은 윤리적 가치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동료들과 의견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시도하기를 권한다.

본 연구는 일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현장실습 중인 4학년 학생의 참여율이 저조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따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생의 인문학적 소양의 실태를 밝히고, 윤리적 가치관 정립에 다양한 교수법의 활용과 공감능력의 중요성을 밝힌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공감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증재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간호윤리 수업에서 강의를 제외한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적용하고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증재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인문학적 소양의 개념에 대한 분석과 인문학적 소양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 높은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 Ahn, Eun-Kyong · Ku, Ok-Hee · Kim, Tae-Sook (1998). The Ethic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4(1), 19~31.
- Ancel, G.(2006). Developing empathy in nurses: An inservice training program.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0(6), 249~257.
- Choi, Gwi-Ney(2004). Medico-ethical values of Korean nursing officer.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 Davis, M. H.(1994).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Westview Press.
- Han, Sang-Youn(2013). Sympathy and philosophical practice: Between being immersed-in and keeping-distance-from. *Hermeneutik Studien*, 33(0), 106~147.
- Han, Sung-Suk · Um, Young-Rhan · Ahn, Sung-Hee · Kim, Joong-Ho · Kwon, Ivo · Ku, In-Hoe et al.(2010). *Nursing ethics 3ed*.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Publishing Co.
- Hoffman, M. L.(2001).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 Hye-Kyung(2015). Moral sensitivity, empathy and ethical climate of nurses working in psychiatric wards.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 Jo, Kae-Hwa · Kim, Gyun-Moo(2013). Health personnel's comprehension of death in Korea.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16(1), 124-138.
- Jo, Kae-Hwa · Park, Ae-Ran · Lee, Jin-Ju · Choi,

- Su-Jung(2015). The influence of humanistic knowledge, hospice perception and spirituality on terminal care performance of clinical nurse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18(2), 103~116.
- Jung, Hyun-Jung · Park, Hyun-Joo · Jang, In-Sun(2012).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based upon CEDA debates on moral judgment and ethical valu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2), 248~258.
- Kang, Young-Ahn(2006). Personal Knowledge and Caring.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Sogang University*, 20, 117~144.
- Kim, Mee-Jeong · Kim, Myung-Hee(1999). A study of moral development and ethical values of the nur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5(2), 337~353.
- Kim, Mi-Won · Park, Jeong-Mo · Han, Ae-Kyung(2011). Analysis of curriculum of 4-year nursing school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414~423.
- Kim, Myoung-Sook(2015).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ethical valu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3), 382~392.
- Kim, Ock-Joo · Lyoo, In-Kyoon · Chang, Kee-Hyun (2004). Experience of medical ethics education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Bioethics Association*, 5(2), 2~18.
- Kim, Sang-Dol(2014). Effects of a blended learning program on ethical values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5), 567~575.
- Kim, Yeoung-II(2014). The study of resilience of the gifted in science: Related with humanistic knowledge. Master's thesis, Inche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Kong, Byung-Hye(2015). Leiden des menschen und die rolle der kunst-aufgund der Schopenhauers kunstlehre. *Journal of Human Studies*, (29), 107~133.
- Lee, Joo-Hee(2011). Assisted Suicide and Criminal Law: Focused on Assisted Suicide as a certain Type of Euthanasia.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11(3), 963~994.
- Lee, Soon-Hee · Kim, Sook-Young · Kim, Jung-A(2007). Ethical Valu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2), 145~155.
- Lee, Young-Sook(1990). A study of the bioethical values of Korean nurses. Master's thesis, Seoul: Chung-Ang University.
- Lutzen, K.(1997). Nursing ethics into the next millennium: A context-sensitive approach for nursing ethics. *Nursing Ethics*, 4(3), 218~226.
- Park, Mi-Hwa(2000). The patterns of change in ethical valu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6(2), 199~217.
- Park, Myung-Hee · Kim, Chang-Sook(2003). A study on the ethical values of clinic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9(1), 30~40.
- Park, Sung-Hee(1997).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Seoul: Moonumsa.
- Rest, J. R.(1986).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Praeger publishers.
- Reynolds, W.(1998). A study of the effects of an empathy education programme on registered nurses' empathy. Open University.
- Reynolds, W. · Scott, P. A. & Austin, W.(2000). Nursing, empathy and perception of the moral.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2(1), 235~242.
- Shin, Hee-Sun(2013). A study about the possibility of personality education through the reading and discussion class on the humanities. *Journal of Ethics*, 90(0), 313~351.
- Williams, J. & Stickley, T.(2010). Empathy and nurse education. *Nurse Education Today*, 30(8), 752~755.

-
- Received : 30 September, 2016
 - Revised : 14 November, 2016
 - Accepted : 18 November, 2016